

열린 대화로 나누는

# 자녀 성교육





## 성교육의 중요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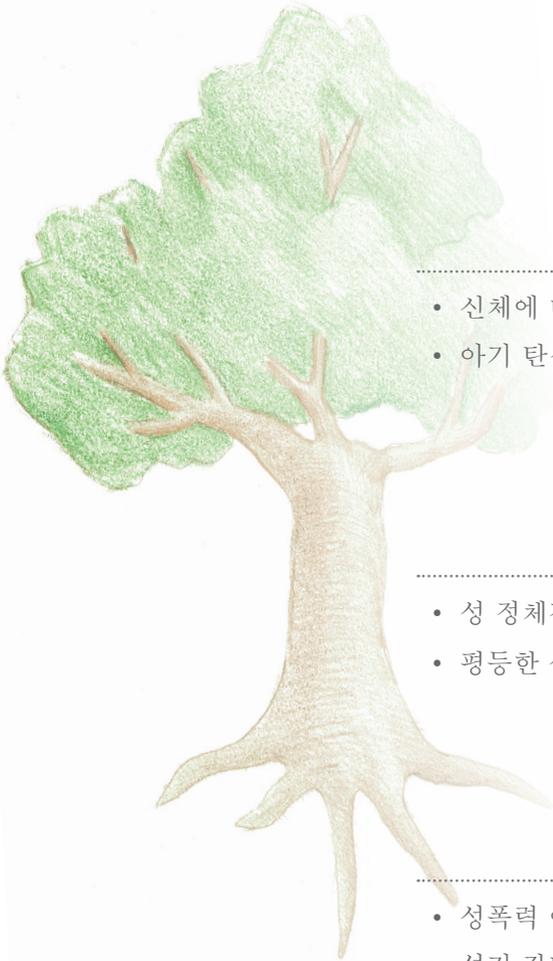
**유**치원에 다니는 5살 된 딸아이가 며칠 전 아프다고 했다. 그 아이가 ‘요로역류증’으로 1년여 동안 병원에 다니고 있어 그런 증세로만 알았는데, 다음날 또 아프고 가렵다고 했다. 혹시나 싶어 누가 만지더냐고 물었더니 유치원에 있는 오빠가 차 안에서 만졌다고 했다. 고민하다 유치원 선생님께 전화를 했더니, 그 또래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아 그런 일이 없을 순 없지만, 이번 일은 몰랐다면서 주의를 주겠다고 했다. 우리 아이에게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땐 소리를 지르고 어른에게 얘기하도록 가르치라고 했다. 유치원에서 성교육을 시키는지 궁금해 물었더니 손으로 장난치지 말라는 등의 얘기를 자주 한다고 했다.

유아 때 나쁜 경험은 사춘기나 성장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, 유치원에서 성교육은 너무 소홀한 것 같다. 유치원에서 성교육시간을 정기적으로 두어 외부의 성교육담당 전문인 등을 초빙하고, 학부모들도 참관할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. 그래서 남녀의 신체 차이에 대해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, 서로 아끼고 보호해야 하는 관계가 되도록 유아교육시설의 성교육 의무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.

출처: 한겨레 2001년 7월 6일자.



## 성교육의 영역



### 성기중심의 교육(30%)

- 신체에 대한 관심
- 아기 탄생 및 출생에 대한 궁금증

### 성역할 교육(30%)

- 성 정체감 형성
- 평등한 성 역할 인식

### 성도덕 교육(40%)

- 성폭력 예방
- 성기 장난



##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



### 만 1세

- 구강 만족감 충족
- 아이의 신호에 적절히 대처
- 따뜻한 신체적 접촉을 통한 정서적 안정

### 만 2세

- 신체에 대한 관심
- 배변연습을 통한 자연스러운 생리현상 경험
- 생식기관의 신체 청결 습관 갖기



### 만 3세

- 성개념 발달
- 타인의 성을 정확히 분류, 성 고정관념이 생기므로 가족의 평등한 성역할 다루기



### 만 4~5세

- 신체의 차이 인식
- 성역할인식
- 양성평등 중요성 이해
- 소중한 성 인식



## 성교육을 위한 방법

- 유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
-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.
- 사실적이고 간단하게 알려줍니다.
- 자녀 수준에 맞게 대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
- 지나친 성교육은 좋지 않습니다.
- 묻지 않는 자녀에게 더 관심이 필요합니다.
- 자녀와 대화를 해야만 성교육도 가능합니다.
- 남녀가 다르지만 소중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.





## 무엇이 최선인가?

**최** 근 들어 유아 성폭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. 13살 미만의 어린이 대상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의 30% 정도이고, 7살 미만 유아 대상의 성폭력도 15%에 이른다. 어린이 성폭력은 피해자의 52%가 2회 이상의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. 어린이는 성폭력에 대한 대응능력 및 인지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. 그러므로 길가, 놀이터, 공중화장실, 아파트 경비실에서, 심지어는 친척이나 친아버지로부터 당하는 경우도 있다. 따라서 어린이 성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부모 및 교사 등 주변에서 조기에 피해사실을 발견하고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대응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

출처: 서울신문 2006년 3월 9일자.

1. 피해자가 의심될 때 부모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?
2. 피해자가 의심될 때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무엇일까?
3. 성폭력 예방 교육할 때 부모가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까?



## 자녀와 함께 육아수첩과 앨범보기

### 준비하기

육아수첩, 앨범, 육아일기

### 이야기 나누기

- 자녀의 육아수첩을 보면서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야기한다.
- 초음파 사진이나 아기 때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기가 엄마 몸 속에서, 그리고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야기한다.

### 평가하기

- 자녀와 함께 옛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.
- 아기가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과정에 대해 다른 때에는 묻지 않는 것들도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.

